

고규홍의 '나무 생각'



공릉과 더불어 살던 오래된 나무

거리 두기와 잠시 멈춤으로 사람살이의 활기가 새들새들해져도 나무의 살림살이에는 아무런 멈춤의 기미가 없다. 도시의 은행나무에 노란 형광빛이 울랐고, 온 산은 붉은빛으로 찬란해졌다. 활엽수 종류의 나무가 벌이는 이 계절에 펼치는 빛의 향연을 하릴없이 멈추었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거기에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초록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푸르러서 노랑-빨강-갈색 등의 총천연색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준다.

에서 심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나라 메타세쿼이아 역사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15년쯤 지난 1972년에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는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심어 키웠다. 담양에서 순창을 잇는 국도 24호선, 담양군청에서 금성면 원울삼거리까지의 길가에 5년 된 메타세쿼이아 1300그루를 심은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이 길을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는 비좁지만 그리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가는 길이 1차로씩인 길 양편으로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우뚝 솟아오른 메타세쿼이아는 극적인 장엄함을 이뤘다.

거리로 조성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가치가 처음부터 인정된 건 아니었다. 물론 담양 주민들이 놀람도 빠르게 자라는 메타세쿼이아가 보여 주는 신비로운 자태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길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널리 알려진 건 나무들이 베어질 위기에 처하면서였다. 2000년의 일이다. 담양-순창 간 국도 4차로 확장 공사가 계획되면서, 2차로 양편의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베어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침엽수이지만 이 계절에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못지않게 아름다운 단풍 빛을 올리는 나무가 있다. 소솔바람 차가워지면 낙엽을 떨구는 것도 거개의 활엽수를 닮은 특별한 침엽수, 메타세쿼이아다. 우리나라에서 메타세쿼이아라는 생경한 이름의 나무를 처음 심은 건 1956년이다. 식물 육종가 현신규 박사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엔 빠르게 자라는 이 나무를 방음이나 방열 효과를 위한 건축 내장재로 이용하려 했지만, 가로수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몇몇 지역

그때 담양 주민들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메타세쿼이아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움직임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고, 그동안 채알지 못했던 메타세쿼이아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다. 긴 난관 끝에 도로 건설 계획은 마침내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나무는 지켜졌다. 이후 산림청과 생명의 숲에서는 이 길을 '아름다운 거리

의료칼럼

중장년·노인도 교정 치료 가능하다



이기현 선이고운치과 원장

치아 알려진 심한 잇몸 질환으로 이를 빼고 바로 회복시켜주지 못한 경우 주변 치아들이 빠진 치아의 빈 공간으로 쏠리거나 대합치아의 정출로 해당 부위의 교합이 무너지게 된다.

되는 경우도 많다. 치주 치료나 보철 치료를 위해 보조적으로 일부 치아만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철도교이라 불리는 복잡한 교정 장치 대신 간단한 장치를 필요한 치아에만 붙여 움직이는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 만약 어금니가 빠져 주변 치아들이 쓰러지고 임플란트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주변 쓰러진 몇몇 치아에만 장치를 붙여 원래 위치로 자리 잡아 줄 수 있다. 앞니 사이 틈새나 틀어진 치아도 해당 부위 위주로 간단한 장치를 통해 가지런하게 배열할 수 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허리가 굽거나 피부가 처지는 것과 같이 당연히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나이가 들면 치주 조직이 약화돼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를 잘 잡아주지 못하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기거나 틀어지고 겹쳐지며 앞니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는 외관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틀어지고 벌어진 부분은 음식물이 잘 끼고 반대로 양치질은 어려워져 잇몸 질환이 악화되는 구강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 교정의 경우 교정 장치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의 교정 치료 기간 부담 때문에 꺼리던 중장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장기간 잇몸 질환을 방지할 경우 염증과 부종으로 인한 병적 치아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두 개 앞니가 갑자기 틀어져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치아 교정을 위해 내원하는 중장년층 환자들 중 심미적인 콤플렉스 해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 외에도 구강 위생 관리를 어려움을 느껴 내원하거나 잇몸 질환의 치료나 보철 치료를 위한 보조적 치아 이동을 위해 교정 치료를 하게

물론 돌출입이나 반대 교합 등 전체 치아에 적용하는 포괄적 전체 교정도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환자일 지라도 교정 치료의 기본적인 메카니즘 즉 치아 이동을 위한 교정 장치와 이에 따른 생리적인 치아 이동은 기본적으로 유-정소년기와 유사하다. 다만 치아 이동을 위한 세포 반응이 늦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치아 이동을 시도해야 하거나 치주 조직의 약

숲'으로 지정했다. 또 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선정됐으며,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포함시켰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장관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숲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모든 메타세쿼이아의 상징이 되었다.

분명 담양 메타세쿼이아는 사람이 들여와, 사람이 키우고, 사람이 지켜 낸 결과다. 시작도 마무리도 결국은 사람의 몫이었다. 자연을 위대하게 가꾸는 건 결국 사람이다. 지금 온 산천에 물든 단풍이 하냥 그림자만 해도, 거리를 두고 잠시 멈춤 사람들의 발걸음이 내일의 위대한 자연을 가꾸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근거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여야의 '호남 구애 경쟁' 현안 해결 기회로

국민의힘이 그제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 점검에 나선다.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이 경쟁적으로 '호남 구애'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빛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안 중역 개정에서 새로 반영할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을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숲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모든 메타세쿼이아의 상징이 되었다.

이목매 정책위의장은 "광주의 숙원 사업이 무엇인지 경청해 내년 예산 심의, 정책 개발,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했고, 정운천 예결위원은 "이번 협의회는 친호남 정책을 확실히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를 내일로 앞당겨 지역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연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이 총출동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지역 그린뉴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부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정지권의 이 같은 호남 민심 잡기 행보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5·18민주화운동·군공향인정·한중전공대·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등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상정돼 있고 내년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활용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등산 난개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등산은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어머니 같은 산이다. 80년 5월 신군부가 광주에서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을 때 무등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무등산은 또 국립공원(2013년)과 국가지질공원(201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8년)으로 지정될 정도로 생태·지질적 가치가 크다. 이렇듯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에게 역사적·환경적·정서적으로 각별한 산이다.

한때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무등산 일대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그제 열린 제 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난개발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신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주거지화할 게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

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뿐만 아니라 산수동 산 67-1번지 일원에도 개인 사업자들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신청했으며, 소태동 산 21번지 일원의 경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수동 산 67-1번지의 경우 박 의원은 "산림이 울창해 건축이 어려워지자 입목도(立木度)를 맞추기 위해 수년간 나무를 고사시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태동 산 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개발 사업 또한 "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연생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등산의 생태 문화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무등산 인근 지역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행정 당국은 무등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난개발 행위를 철저히 파악해 도시계획과 생태문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5년 전인 2005년 대한민국은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팀이 미국 사이언스지에 제출한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사람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를 복제하고, 이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했지만, 그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황 전 교수가 개발하려 했던 배아줄기세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얻은 수정란을 배반포(착상되지 전 배

특히 뇌신경, 심장 근육, 췌장, 척수 등이 대표적이던 따라서 이들 장기는 한 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수는 평균적으로 약 60조 개 정도다. 이 가운데 약 50만 개가 1초도 안 돼 사멸하고 동시에 50만 개가 재생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 유지 과정이다. 나이가 들면 재생되는 세포 수가 감소하고, 줄기세포가 없는 장기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병들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뜨끔없는 말 같지만 광주라는 도시가 온통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세포'가 오로지 딱 한 가지로 채워지고 있어

도시재생 유감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다. 배아줄기세포는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난치병 치료, 수명 연장, 심지어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

사실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없다면 한시도 살아 있을 수 없다. 혈구와 피부가 만들어지고 상처 난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은 다 줄기세포 덕분이다. 하지만 모든 장기가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는 셈이다. 건설업체, 일부 공인중개업체, 투기 세력 등이 하나가 돼 도시 공간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독주택, 골목길, 작은 공원이나 텃밭, 동네 점포 등이 사라진 도시는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도시의 '배아줄기세포'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고

수능 응시율 하락이 두려운 이유



장광재 승덕고 교사

내신 성적은 필요가 없을 것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없는 전형에 응시했다면 수시 접수와 함께 입시가 끝나 버린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3학년 2학기 수업은 무의미 할 것이며, 수능 시험 또한 이들의 학습 동기를 끌어 올리지는 못한 듯하다.

3년, 늦어도 5년이면 수능의 수명은 다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예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에 적합한 대입 정책이 시행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 확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과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는 새로운 대입 정책 수립의 기회마저 박탈하여 다시 공교육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 같다.

특히 작년부터 학령 인구 급격한 감소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대학들은 수시 전형에서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되었고, 수험생들의 용이한 지원을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는 대학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미 선발 기능을 상실한 지방 사립대학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률 보장을 하다 보니, 학생들은 더 이상 수능 시험에 열매일 필요가 없어 올해 수능 응시율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사실 수능 응시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88.3%까지 하락하였고, 금년 6월 평가원 모의 고사에서는 접수자 대비 81.8%까지 하락하였다. 수능 접수자 대비 응시율의 하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최대 피해자는 상위권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 대한민국 입시에서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거의 없다. 견고한 공정성의 아이러니로 자리 잡고 있는 터에 그 무슨 수로 수능 시험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수능 시험은 의외로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학령 인구 감소, 수능 응시비율 감소라는 두 축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 추세대로 수능 응시 비율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빠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